

무용(교육)에서 요구되는 예술적 역량 척도요인 분석*

김정숙 · 이병준

부산대학교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무용은 인간의 신체를 통한 움직임을 주요 매체로 삼는 예술이며, 무용예술의 근원적 바탕을 이루는 신체는 언어와 도구에 앞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는데 이용되어져 예술 행위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다¹⁾. 이러한 신체는 유기체로서 물질의 집합이면서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가 물질화 또는 체화(embodiment)한 것이며, 사회적 동물로서 개인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존재인지를 표현해내는 수단이다²⁾. 그리고 무용수에게 신체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는 중요한 요소이며 좋은 무용수행을 위한 매개체에 초점하여 무용수가 인지하는 신체에 관한 연구는 무용수의 심리, 사회, 생리, 생물학적 메카니즘을 통하는 과학적 탐색이라 할 수 있겠다³⁾.

* 이 논문은 2009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김말복, 나일화(2008). 무용미학의 논의를 위한 들뢰즈(G. Deleuze)사상의 수용가능성. 『무용예술학연구』 25, pp. 1-31.
- 2) Harre, R.(1991). *Physical Being: A Theory for a Corpore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 3) 김정숙(2009). 무용수가 인지하는 객체화 신체의식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26, pp. 51-63.

무용이 교육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는 무용이 다른 타 분야와 같은 맥락에서 공통성과 질서가 포함된 민주적인 예술(democratic art)행위로 영역을 가질 수 있는가는 교육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적으로 신체를 움직여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무용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숨쉬는 것 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동작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생래적(生來的)성향은 예술무용의 표현수단을 획득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창조적 예술로서 무용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또 신체적, 정신적, 영적 욕구가 성장함에 따라 각 성장 단계에 알맞은 무용을 하도록 지도를 받는다면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무용 교육의 학습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⁴⁾.

예술표현이란 자신의 경험에서 비춰지는 감정과 의미를 움직임이라는 언어로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며, 예술표현에서의 움직임은 신체의 확장된 언어로 작품 속에 내재된 의미의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예술적 역량(artistic competencies)은 장르와 연관된 예술적 역량(area-related artistic competencies)과 일반적 예술 역량(general artistic competencies)으로 구분되며, 장르와 연관된 예술적 역량(area-related artistic competencies: 음악, 문학, 드라마, 연극, 춤, 미술, 기타 미디어, 리듬)은 예술의 각 영역 속에서 획득되는 역량으로 전형적인 예술 속에서 일반적 예술 역량(general artistic competencies)을 이끌어 내는 기초로 사용되는 것이고, 일반적 예술 역량(general artistic competencies: 창의성, 가능성, 감수성, 상징역량, 놀이능력)은 다른 종류의 예술 활동의 결과로 획득되는 것으로, 가능성, 창조성 그리고 상징 역량과 같은 것이다⁵⁾. BKJ(German Federation of Associations for Cultural Youth Education; 독일 연방 문화 청소년 교육협회), BMBF(Germ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uropean Commission⁶⁾에서 나타난 역량의

4) 김정숙, 표내숙(2006). 무용전공여대생의 수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관계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5(6), pp. 291-299.

5) 위미나, 이병준(2008). 독일에서의 문화적 역량 담론 연구. 『문화교육학회』 4, pp. 9-32.

6) BKJ, BMBF, OECD, European Commission(2003). *Developing Competencies in Cultural Education*. p. 97.

개념 구조(The Conceptual Framework of Competencies)에서는 예술적 역량의 하위 영역에 창의력, 수용력/사고력, 모방능력, 실현능력/재현능력, 쾌활함/현실감각, 언어능력/신체언어능력, 상상력, 미적성찰능력, 감성능력, 미디어 역량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술적 역량이란 각 예술영역에서 필요한 기증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며, 여기에는 창의력, 수용력과 표현력, 모방능력, 재현능력, 현실감각, 상상력, 미적 판단 능력, 감성능력, 미디어 역량 등의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이며,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선 판단을 이끌어내는 지적이며 경험적인 힘이다.

이러한 예술적 역량은 무용 분야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몰입(호기심, 열정, 목표, 지적수준, 통찰력), 감성(감성적 지각, 신체성, 표현력, 경험), 모방(모사, 연습, 재창조, 응용, 노력), 미적성찰(수용력, 비평력)을 가진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무용 교육 현장에서 창의성과 예술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상의 요인들에 대한 무용 교육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본다는 것은 무용 교육 문화장르에서의 창의력 유발과 긍정적인 심리현상을 높게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무용교육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는 이론적 기초로 학교 교과내용에서 동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으며, 동작교육의 목표가 건강한 신체의 외형적인 성장과 활동성에 중점을 둔 반면에 무용교육은 신체적 감각을 통한 인지적 발달 영역에 중심을 두고 통합적 인간 형성을 위한 실천적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⁷⁾.

본 연구는 무용(교육)에서 요구되는 예술적 역량 척도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예술적 역량 하위요인인 문화예술공통 역량(상상력, 놀이성, 표현, 창조성, 미디어)과 예술적 역량(열정, 감성, 모방, 미적성찰)을 통해 무용 전공인의 자아개념과 문화인지능력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그 적용을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는데 그

7) 박영하(2009). 장애아를 위한 무용교육의 인지적 지도법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6, pp. 87-108.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예술적 역량 척도의 적용으로 무용 전공인에게 예술적 역량의 인지가 보다 쉽고 용이해져서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예술작품실현 및 무용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예술적 역량은 무용 전공인에게 자신들의 예술적 역량 인지에 대한 내면화된 의식을 인지하고 구체화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무용예술교육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교육)에서 요구되는 예술적 역량 척도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예술적 역량 하위요인인 문화예술공통 역량(상상력, 놀이성, 표현, 창조성, 미디어)과 예술적 역량(열정, 감성, 모방, 미적성찰)을 통해 무용 전공인의 자아개념과 문화 인지능력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그 적용을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예술적 역량 척도의 적용으로 무용 전공인에게 예술적 역량의 인지가 보다 쉽고 용이해져서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예술작품실현 및 무용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예술적 역량은 무용 전공인에게 자신들의 예술적 역량 인지에 대한 내면화된 의식을 인지하고 구체화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무용예술교육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최근, 무용교육학 연구자들은 무용 전공인을 위한 예술 심리 척도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무용예술 인지능력이 높은 무용 전공인들의 경우 척도에 대한 이해가 높고 따라서 이에 대한 높은 예술적 역량이 보일 수 있으나 무용예술에 대한 경력이나 인지가 낮은 무용 전공인들의 경우엔 다른 분석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술적 역량 척도의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무용 전공인들이 지각하는 무용예술에 대한 인지분석은 무용 전공인들의 예술심리를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무용예술교육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이끌어 향후 예술적 역량의 개념이 무용예술 교육에 개선된 모습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집방법인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무용수 197(프로:111 / 대학생:86)명이 선정되었다. 예비조사에서는 무용수 31명이고, 본 조사에서는 166명이 선정되었다. <표 1>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변 인		빈도(명)	
성 별	남	21	
	여	176	
경 력	3~5년	3	
	5~7년	24	
	7~9년	97	
	9년 이상	53	
전 공	한국무용	87	
	현대무용	64	
	발레	46	
대상분류	프로(111)	- 직업 무용수	82
		- 개인 무용수	29
	대학생(86)	1학년	7
		2학년	38
		3학년	16
		4학년	25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술적 역량 척도 질문지는 이병준(2009)외⁸⁾ 10명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에서 발췌하였다. 예술적 역량 척도 질문지는 하위요인은 크게 문화예술공동 역량(상상력, 놀이성, 표현, 창조성, 미디어)과

8) 이병준외 10(2009). 문화적 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예술적 역량(열정, 감성, 모방, 미적성찰)으로 구분되며, 전체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문화예술공통 역량에서 상상력 요인은 4문항(1-4번), 놀이성 요인은 4문항(5-8번), 표현 요인은 10문항(9-18번), 창조성 요인은 5문항(19-24번), 미디어 요인은 5문항(25-29번)이며, 예술적 역량에서 열정 요인은 2문항(30-31번), 감성 요인은 1문항(32번), 모방 요인은 1문항(33번), 미적성찰 요인은 3문항(34-36번)이다. 검사지의 응답형태는 해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교육학 교수 1명, 교육학 박사 1명, 스포츠심리학 박사 1명이 함께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예술적 역량 척도의 내용구성이 무용 전공인들에게 적용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고 이에 준거하여 문항의 구성을 무용 전공인들의 시각에서 조금 더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적인 수정 및 구성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6문항, 9개 하위요인이 예비조사를 위한 검사지의 초안으로 채택되었으며, <표 2>에 제시되었다.

3. 연구절차

36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 초안을 이용하여 무용수 31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1차 예비조사를 통해 32문항 9개 하위요인이 구성되었고, 삭제된 문항은 놀이성 요인의 5번(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안다)과 8번 문항(여럿이 함께 하는 놀이에 대하여 많이 안다.)과 표현 요인의 14번 문항(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전시물을 볼 때 내 방식대로 전시해보고 싶다고 느낀다.) 그리고, 창조성 요인의 24번 문항(주위 사람들은 내가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한다.)이다. 완성된 1차 예비판 검사지는 2차 예비조사를 위해 무용전공인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2문항, 9개 요인을 완성하였다.

4. 자료처리

WINDOWS용 SPSS(ver. 11.0) 통계 프로그램과 AMOS(ver 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2〉 예술적 역량 척도의 초안

문 항(번호, 내용)	
1. 아름다운 상황이나 장면에 대해 지각경험을 통해 자유롭게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다	상상력
2. 오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경험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다	
3. 자신의 느낌과 정서를 자유롭게 상상하여 다양한 형태(언어, 신체, 그림, 음악 등)로 표현할 수 있다	
4. 비현실적인 장면이나 상황을 공상으로만 가능한 오감각적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5.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안다	놀이성
6. 놀이에 관심이 많고 즐긴다	
7. 삶에 있어서 일만큼 놀이에도 시간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8. 여럿이 함께 하는 놀이에 대하여 많이 안다	
9. 친구들 별명을 잘 짓는다	표 현
10. 나의 생각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잘 표현하는 편이다	
11.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실물로 표현하는데 관심이 높다	
12.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갖는지 안다	
13. 내 주변의 물건들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14.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전시물을 볼 때 내 방식대로 전시해보고 싶다고 느낀다	
15. 박물관, 미술관 등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16. 역사를 다룬 드라마, 영화를 즐겨 본다	
17. 예술작품을 다룬 연극, 공연, 축제 등을 즐겨 본다	
18. 역사지식이 풍부한 편이다	
19. 주변의 물건들을 더 쓰임새 있고 보기 좋게 바꾸고 싶다	창조성
20. 무엇인가를 만들 때 인내심을 가지고 집중한다	
21. 주위 사람들은 내가 아이디어가 많다고 한다	
22.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3. 무엇을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24. 주위 사람들은 내가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한다	미디어
25. 매체(TV, 디지털 카메라, 인터넷, 신문, 잡지 등)를 활용(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26.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편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다	
27.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유통하는데 익숙하다	
28.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입장이 서로 다른 매체들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	
29. 매체에서 소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독자투고란이나 댓글달기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표 2〉 계속

문항(번호, 내용)	
30. 어떤 일을 할 때 깊이 빠지는 편이다	열정
31.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을 잘한다	
32. 이산가족 찾기와 같은 TV프로그램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감성
33. 운동, 요리, 악기연주, 그림그리기 등을 잘 배우려면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방
34. 계절의 변화, 희로애락의 감정 등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편이다	미적 성찰
35. 책, 드라마, 영화, 그림 등을 감상하고 작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36. 책, 드라마, 영화, 그림 등을 대할 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각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와 왜도의 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및 문항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일치도 계수를 분석하였으며, 검사지의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Q지수와 GFI, AGFI, RMR, RMSEA, TLI, CFI 을 지수로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문항특성 분석

무용 전공인을 위한 예술적 역량 척도 최종본 확정을 위해 실시한 문항특성 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면 모든 문항에서 극단적인 값(평균 : 2.12에서 3.73, 표준편차 : ± 1.89 에서 $\pm .28$)이 나타난 문항은 없었고 왜도와 첨도 값이 ± 2.0 이상인 문항들은 없어 문항이 극단으로 치우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9문항에 대한 Item-total statistics는 〈표 4〉에 제시되

〈표 3〉 예술적 역량 척도의 문항특성

문 항(번호, 내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아름다운 상황이나 장면에 대해 지각경험을 통해 자유롭게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다	2.85	.83	.30	1.02
2. 오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경험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다	2.79	.86	.15	.62
3. 자신의 느낌과 정서를 자유롭게 상상하여 다양한 형태(언어, 신체, 그림, 음악 등)로 표현할 수 있다	2.86	.92	.31	1.07
4. 비현실적인 장면이나 상황을 공상으로만 가능한 오감각적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3.23	.93	.57	.03
6. 놀이에 관심이 많고 즐긴다	2.30	.28	-.36	-1.22
7. 삶에 있어서 일만큼 놀이에도 시간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92	1.14	.48	-.99
9. 친구들 별명을 잘 짓는다	2.96	1.17	.60	.51
10. 나의 생각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잘 표현하는 편이다	2.50	1.13	.24	.27
11.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실물로 표현하는데 관심이 높다	2.43	1.12	.20	-.79
12.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갖는지 안다	2.74	1.07	-.18	.20
13. 내 주변의 물건들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2.96	.81	.29	.16
15. 박물관, 미술관 등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3.11	1.89	-.22	1.29
16. 역사를 다룬 드라마, 영화를 즐겨 본다	3.73	1.12	.84	.23
17. 예술작품을 다룬 연극, 공연, 축제 등을 즐겨 본다	2.92	1.04	-.01	-.55
18. 역사지식이 풍부한 편이다	2.80	.87	.13	-.76
19. 주변의 물건들을 더 쓰임새 있고 보기 좋게 바꾸고 싶다	2.60	1.16	.21	-.84
20. 무엇인가를 만들 때 인내심을 가지고 집중한다	2.27	.89	.79	.53
21. 주위 사람들은 내가 아이디어가 많다고 한다	3.38	1.17	-.16	-.75
22.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53	.93	.22	-.87
23. 무엇을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2.80	.86	.09	.53
25. 매체(TV, 디지털 카메라, 인터넷, 신문, 잡지 등)를 활용(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2.53	.94	.25	-.76
26.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편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다	2.88	.93	.49	-.88
27.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유통하는데 익숙하다	2.77	.99	.79	.29
28.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입장이 서로 다른 매체들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	2.76	.86	.50	.45

〈표 3〉 계속

문항(번호, 내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29. 매체에서 소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독자투고란이나 댓글달기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3.15	.78	.28	.70
30. 어떤 일을 할 때 깊이 빠지는 편이다	3.08	.76	-.17	.95
31.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을 잘한다	2.27	.96	-.11	.59
32. 이산가족 찾기와 같은 TV프로그램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3.23	1.17	.28	-.75
33. 운동, 요리, 악기연주, 그림그리기 등을 잘 배우려면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다	2.69	1.19	.17	-.67
34. 계절의 변화, 희로애라의 감정 등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편이다	2.73	.92	-.11	-.98
35. 책, 드라마, 영화, 그림 등을 감상하고 작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3.38	.98	.25	.49
36. 책, 드라마, 영화, 그림 등을 대할 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2.12	.76	.21	-.84

있으며, Cronbach's α 값은 .7310로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문항 13과 나머지 문항들의 총합 점수와의 상관계수가 .67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문항 6과 나머지 문항들의 총합 점수와의 상관계수가 .125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항 29는 예술적 역량 검사의 문항 내적일치도에 일치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탐색적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들에 대한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 중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소수의 요인들을 추출해 내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회전방식은 요인 행렬의 단순화를 통해 명확한 요인 구분이 가능한 직교회전 중, 열(column)의 분산을 최대화시켜 열(row)을 단순화하는 방식인 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5〉에 나타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9개의 하위요인인 29문항으로 구성된 예비판 검사지에서 총 9개 요인 22문

〈표 4〉 전체문항분석 결과

문항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 전체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1	94.3462	288.396	.4498	.7828
2	94.4231	285.911	.5147	.7824
3	94.3462	288.587	.4306	.7781
4	94.0769	284.758	.3893	.7779
5	94.8846	290.189	.2892	.7798
6	95.2692	289.565	.1253	.8265
7	94.2308	242.565	.3177	.7707
8	94.6923	282.431	.5243	.7747
9	94.7692	279.737	.5344	.7737
10	94.4615	278.891	.6531	.7711
11	94.2308	278.609	.5751	.7738
12	94.0769	291.365	.5567	.7736
13	93.4615	254.247	.6703	.7707
14	94.2692	288.343	.3372	.7701
15	94.3846	283.698	.5595	.7730
16	94.5385	282.183	.6208	.7725
17	94.9231	280.245	.6410	.7707
18	93.8077	296.343	.5816	.7730
19	94.6538	286.645	.3619	.7282
20	94.3846	290.566	.3422	.7210
21	94.3077	283.341	.5406	.7151
22	94.4231	282.235	.6778	.7555
23	94.0385	296.146	.6245	.7303
24	94.1154	295.238	.4621	.7285
25	94.9231	232.635	.5343	.7851
26	93.9615	296.580	.5071	.7670
27	94.5000	246.418	.6306	.7309
28	94.4615	209.921	.4127	.7568
29	93.8077	281.034	.4263	.7573
Cronbach's $\alpha = .7310$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상상력	놀이성	표현	창조성	미디어	열정	감성	모방	미적성찰
3	.602								
1	.587								
6		.644							
9		.602							
7		.516							
13			.729						
17			.703						
16			.638						
19			.592						
11			.522						
10			.418						
22				.801					
23				.730					
20				.562					
25					.671				
27					.624				
30						.549			
31						.460			
32							.601		
33								.646	
35									.883
34									.791
A	2.670	2.055	1.204	1.068	.655	.501	.403	.301	.143
B	29.665	22.839	13.375	11.867	7.274	5.570	4.475	3.344	1.593
C	29.665	52.504	65.879	77.746	85.019	90.589	95.064	98.407	100.000
Cronbach's α	.650	.608	.705	.726	.633	.502	.601	.646	.748
KMO	.526								
Bartlett $\chi^2=443.988$ p=.000									
Cronbach's α	.703								

〈note〉 A:고유치 B:변량비율 C:누가변량비율

항이 추출되었다. 우선 KMO 값이 .526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chi^2=443.988$, $p=.000$ 으로 나타나 표본 적합도와 요인 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상상력 요인에 관련된 문항은 1번과 3번 문항, 놀이성 요인에 관련된 문항은 6, 7, 9번 문항, 표현 요인에 관련된 문항은 9, 10, 11, 14, 16, 17번 문항, 창조성 요인에 관련된 문항은 20, 22, 23번 문항, 미디어 요인에 관련된 문항은 25, 27번 문항, 열정 요인에 관련된 문항은 30, 31번 문항, 감성 요인에 관련된 문항은 32번 문항, 모방 요인에 관련된 문항은 33번 문항, 미적성찰 요인에 관련된 문항은 34번과 35번 문항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를 Cronbach's α 로 분석한 결과에서 상상력 요인은 .650, 놀이성 요인은 .608, 표현 요인은 .705, 창조성 요인은 .726, 미디어 요인은 .633, 열정 요인은 .502, 감성 요인은 .601, 모방 요인은 .646, 미적성찰 요인은 .748로 각 요인들의 신뢰성이 대체로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확인적 요인분석

객체화 신체의식 측정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증된 문항들을 대상으로 운동의사결정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제시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개념에 대한 각 요인의 적재치는 .39에서 .77로 나타났으며, 측정오차 변량은 .24에서 .73의 값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카이제곱과 자유도의 비(χ^2/df) Q값은 2.683으로 나타났으며, GFI값은 .886로, AGFI값은 .903, RMR값은 .050, RMSEA값은 .072, TLI값은 .884 그리고 CFI값은 .903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모형에 대한 적합성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지수	χ^2	Q	GFI	AGFI	RMR	RMSEA	TLI	CFI
수용기준	2-5정도 양호		.90이상	.90이상	.05이하	.08이하	.90이상	.90이상
예술적역량	279.402	2.683	0.886	0.903	0.050	0.072	0.884	0.903

평가는 공분산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모형의 적합성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부합지수 등을 이용하는데, 본 연구는 절대적합 지수에 의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따라서 절대적합지수들인, 즉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들인 Q지수와 GFI, AGFI지수 그리고 RMR과 RMSEA, TLI 지수들을 측정하였다.

IV. 논 의

한국어판으로 변안된 심리 검사가 측정하는 구인이 연구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심리검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대상에 따른 해석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심리검사를 개발하고 사용할 때는 일반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상에 적용하여 얻어진 증거들은 그 심리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의 타당한 해석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일반인들을 위해 개발된 검사 도구를 무용인에게 적용하여 사용할 때는 검사지에 대한 세밀한 타당도 검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개념적, 통계적 절차를 거쳐 타당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인을 대상으로 예술적 역량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무용인들이 지각하는 예술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무용인이 예술적 자아개념과 무용예술에 명확한 작품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이에 예술적 역량 척도의 문항분석, 신뢰도 및 KMO(Kaiser-Meyer-Olkin Measure) 값과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sphericity)를 구하였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9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9개요인 하위영역 문항들에서는 요인부하 값이 적절(요인분석에서는 분석될 표본의 상관행렬이 적당한 크기를 가져야 요인분석이 가능하며, 대체로 요인분석 할 변인들의 절반이상은 상관이 ± 3.0 을 초과해야 요인분석 할 가치가 있다; 양병화, 199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적합하게 나타난

9) 전해자, 김혜진, 박재현(2003). 장애인용 운동의사결정 균형검사의 요인불변성.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1(3), pp. 97-107.

2번(오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경험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다), 4번(비현실적인 장면이나 상황을 공상으로만 가능한 오감각적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5번(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안다), 8번(여럿이 함께 하는 놀이에 대하여 많이 안다), 12번(사람들에게 물건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갖는지 안다), 14번(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전시물을 볼 때 내 방식대로 전시해보고 싶다고 느낀다), 15번(박물관, 미술관 등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18번(역사지식이 풍부한 편이다), 21번(주위 사람들은 내가 아이디어가 많다고 한다), 24번(주위 사람들은 내가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한다), 26번(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편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다), 28번(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입장이 서로 다른 매체들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 29번(매체에서 소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독자투고란이나 댓글달기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36번(책, 드라마, 영화, 그림 등을 대할 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문항이 삭제되었다. 실제 초안에서 많은 문항이 삭제되어 문화예술전체 측면에서 본 시각과 무용인들이 인지하는 시각은 크게 다른 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의미는 무용인들이 문화 예술적 기준의 이상적인 중점에 대해 일반예술문화와는 다른 관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곧 무용의 특성과 연관된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계속적으로 객체화 신체화 척도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문항들과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 추출된 9개의 요인들을 대상으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Q값은 2.683로 나타났으며, GFI값은 .886로, AGFI값은 .903, RMR값은 .050, RMSEA값은 .072, TLI값은 .884 그리고 CFI값은 .90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hi^2/df=Q$ 는 279.402로 나타나 모델이 원만한 수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첫째,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용전공인의 예술적 역량 척도의 개념 파악을 위해 중재자(무용교사 및 무용 지도자)가 인식하는 무용전공인의 예술적 역량 척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무용전공 및 무용경력에 따른 분류를 세분화하여 지속적인 척도 분석을 실시하여 예술적 역량 척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

용되어진 예술적 역량은 무용교육에서 무용수의 예술 인지능력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타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후속 연구의 실천적 제언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김말복, 나일화(2008). 무용미학의 논의를 위한 들뢰즈(G. Deleuze)사상의 수용가능성. 『무용예술학연구』 25, 1-31.
- 김정숙(2009). 무용수가 인지하는 객체화 신체 의식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26, 51-63.
- 김정숙, 표내숙(2006). 무용전공여대생의 수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관계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5(6), 291-299.
- 박영하(2009). 장애아를 위한 무용교육의 인지적 지도법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6, 87-108.
- 이병준외 10(2009). 문화적 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위미나, 이병준(2008). 독일에서의 문화적 역량 담론 연구. 『문화교육학회』 4, 9-32.
- 전혜자, 김혜진, 박재현(2003). 장애인용 운동의사결정 균형검사의 요인불변성.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1(3), 97-107.
- BKJ, BMBF, OECD, European Commission(2003). *Developing Competencies in Cultural Education*. p 97.
- Harre, R.(1991). *Physical Being: A Theory for a Corpore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논문투고일 2009년 10월 31일
심사일 11월 9일
심사완료일 11월 30일

Abstract

Analysis of Artistic Competencies Scale in Dance Education

Jung-suk Kim · Byung-jun Lee

Lecturer,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development and validation artistic competencies scale (ACS) for the dance education. The subjects consisted of 197 dancer. After conducting content validity and pilot study, in order to get a final version of the artistic competencies scale, explanatory factor analysis, internal consistency and stability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procedures of the study.

The result of explan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artistic competencies scale was composed of 9 factors and 22 items.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index values which were greater than .9 reflected an acceptable fit model. These results may contribute to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a new questionnaire for the dance education.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with various psycho-social perspectives and interpre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xcessive physical activities might play a central role in mental health.

keywords: artistic competencies scale(예술적 역량 척도), explanatory factor analysis(탐색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확인적 요인분석), dance education(무용 교육)